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미¹ · 박영미¹ · 이지현² · 조은주² · 장선녀³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¹, 고신대학교 간호대학², 수진초등학교 보건교사³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ttend a Community Child Center after School

Jung Yee Kim¹ · Young Mi Park¹ · Ji Hyun Lee² · Eun Ju Cho² · Sun Nyu Chang³

¹Graduate School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³Sujin Elementary School of Health Teacher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effect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who attend a community child center.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43 children attending a community child center in P city with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August 20 to September 20, 2016.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version 18.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rade, one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ubjective well-being ($\beta=.56$) and grade division ($\beta=.19$). These variables explained 38.0% of the total variance in psychological well-being. **Conclusion:**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desirable to develop measures to increase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provide support according to grade in order to improv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adolescents attending community children centers.

Key Words: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Subjective well-being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기 이후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불안정한 고용, 맞벌이 가족이 증가하면서 가족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과 후 방치되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1]. 이러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 결식예방, 학교 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기능의 약화, 우울이나 불안 등이 가중되기 때문에 낮은 심리

Corresponding author: Young Mi Park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49267, Korea.
Tel: +82-51-990-3972, Fax: +82-51-990-3970, E-mail: bero1001@naver.com

Received: Nov 16, 2016 / Revised: Dec 16, 2016 / Accepted: Dec 17,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적 안녕감이 우려된다[2]. 따라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이며 마음이나 생각이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이다[3].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요소는 자기 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의 여섯 개 하위요인이 있다[4].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높다[5].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걱정, 불안, 회피 애착 등 타인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난다[5].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 요인은 환경요인과 개인의 내적요인이 있다. Wi와 Cho [6]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환경적 요인은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가, 내적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 있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ang과 Lee [7]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활력성, 호기심 및 낙관성으로 구성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효과를 가지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의 자아탄력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좁은 의미로는 개인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응력이며, 넓은 의미로는 내·외적 스트레스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며 스트레스나 위기위험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다[6].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삶의 변화 또는 불안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8].

Ahn 등[9]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하나인 친구지지가 높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친구지지의 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시 친구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은 그로 인해 친구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런 성향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oo와 Park [10]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Lee [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친구지지가나 교사지지, 가족지지가 높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Lee와 Choi [12]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을수록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며 심리적 안녕감을 높게 된다. 친구지지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넓은 사회적 접촉을 시도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하며, 교사지지는 아동과의 관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신념을 제공한다[2]. Lee [13]의 연구에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Jung [1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Kim과 Yu [4]의 연구와 Ko [15]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이며,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삶에 대한 만족과 긍정적 정서이다[15]. 주관적 안녕감의 구성요인은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이 있다. 인지적 요인은 삶의 만족감이며, 정서적 요인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다[16].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나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고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하게 되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은 기쁨이나 삶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안이나 분노, 불만족 등의 부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o [15]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안녕감보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Wi와 Cho [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Ahn 등[9]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친구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라고 하였다. Kang과 Lee [7]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와 Choi [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인 친구지지와 가족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eon과 Ha [17]의 연구에서는 또래관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관계 즉 친구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Won [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Jo와 Lim [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hn 등[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탄력성은 친구지지에 직접 영향을 미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Ko [1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비해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의 세 변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영향요인으로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주변 환경요인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갖고 능률적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건강상태라고 할 수 있다[14]. 심리적 안녕감의 내적 요인으로 자아탄력성과 삶의 만족감인 주관적 안녕감,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해하여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와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았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

리적 안녕감을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P시에 소재하는 8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했을 때, 다중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유의수준 $\alpha = .05$, 효과크기 medium .15, 검정력 .80, 요인의 수 10개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18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률 20%을 고려하여 150부를 연구대상자에게 배부하였으며,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14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8월 20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전에 K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KU IRB 2016-59)을 받았으며, 해당 지역아동센터장의 협조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조사연구에 참여 학생들의 연구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저학년에게는 설문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설명해주어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는 Block 과 Kremen [20]이 개발한 자아-적응유연성 척도(Ego-Resilience Scale)를 Yu 등[21]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번역자의 메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총 14개 문항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거의 그렇다' 5점으로 총 점수는 최소 14점에서 최대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u 등[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2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는 Cohen과 Hoberman [22]이 개발한 ISEL (International Support Evaluation List)를 Han과 Yoo [23]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수정자의 메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의 지지의 24문항 가운데 친구지지 및 교사지지의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으로 총 점수는 최소 16점에서 최대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도구 신뢰도는 Han과 Yoo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3)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 측정도구는 Park와 Song [24]의 청소년 대상 주관적 안녕감 척도를 Joo와 Park [10]이 원도구의 긍정, 부정문항 중에서 긍정문항만 선택하여 수정한 도구를 수정자의 메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3개의 하위영역으로 효능안녕 4개 문항, 정서안녕 4개 문항, 관계 안녕 4개 문항의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은 최소 12점에서 최대 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Joo와 Park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였다.

4)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는 Kim 등[25]이 개발한 성인대상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를 Jung [14]이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수정자의 메일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구성은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는 자주 슬프다고 느낀 적이 있다'와 같은 우울감 7개 문항, '나는 늘 행복한 기분이 든다'의 행복감 6개 문항,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울 때가 있다'의 불안감 3개 문항의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부정적 문항의 점수는 역환산하여 점수를 합산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정말 그렇다' 5점으로 총점은 최소 16점, 최대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ung [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평점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é test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43명으로 남자 56.6%(81명), 여자 43.4%(62명)이었으며, 학년은 초등학교 저학년 39.1%(56명), 고학년이 39.8%(57명), 중학생이 20.9%(30명)의 순이었다. 부모님의 연령으로 엄마연령은 40~50세 미만이 49.7%(71명)로

가장 많았으며, 아빠연령은 40~50세 미만이 55.2%(79명)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는 5명 이상이 38.5%(55명)가 가장 많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도 수는 일주일에 매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53.8%(77명)로 가장 많았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을 보면 3년 이상이 35.7%(51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평균 3.63±0.70점(척도범위: 1~5점)이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은 3.74±0.84(척도범위: 1~5점)이었으며, 주관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은 3.79±0.82점(척도범위: 1~5점)이었으며,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3.41±0.73점(척도범위: 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학년(F=6.61,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한 결과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이 초등학생 저학년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43)

Variables	Item	M±SD	Range
Ego-resilience	14	3.63±0.70	1~5
Social support	16	3.74±0.84	1~5
Subjective well-being	12	3.79±0.82	1~5
Psychological well-being	16	3.41±0.73	1~5

Table 1.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4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cheffé s
Gender	Male	81 (56.6)	3.49±0.72	1.50	.135	
	Female	62 (43.4)	3.30±0.74			
Year	Lower elementary grade ^a	56 (39.1)	3.14±0.61	6.61	.002	a < b, c
	Upper elementary grade ^b	57 (39.8)	3.54±0.78			
	Middle student ^c	30 (20.9)	3.65±0.71			
Mother's age (year)	Non-response	28 (19.6)	3.41±0.72	1.33	.267	
	30~<40	34 (23.8)	3.62±0.77			
	40~<50	71 (49.7)	3.33±0.72			
	50≤	10 (7.0)	3.25±0.61			
Father's age (year)	Non-response	32 (22.4)	3.52±0.68	0.89	.445	
	30~<40	9 (6.3)	3.44±0.48			
	40~<50	79 (55.2)	3.42±0.76			
	50≤	23 (16.1)	3.20±0.79			
Number of close friends (person)	1	28 (19.6)	3.22±0.61	1.70	.151	
	2	17 (11.9)	3.36±0.56			
	3	30 (21.0)	3.26±0.69			
	4	13 (9.1)	3.41±0.83			
	5≤	55 (38.5)	3.60±0.81			
Frequency of use	1 time/week	4 (2.7)	3.29±0.75	1.63	.185	
	2~3 times/week	12 (8.3)	3.10±0.44			
	4 times/week	50 (34.9)	3.57±0.71			
	Everyday	77 (53.8)	3.36±0.77			
Length of use (year)	<1/2	21 (14.7)	3.22±0.60	1.37	.246	
	1/2~<1	22 (15.4)	3.29±0.55			
	1~<2	29 (20.3)	3.31±0.72			
	2~<3	20 (14.0)	3.66±0.78			
	3≤	51 (35.7)	3.50±0.81			

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 정도의 순 상관관계($r=.47, p<.001$)를,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 정도의 순 상관관계($r=.47, p<.001$)로,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 정도의 순 상관관계($r=.59, p<.001$)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5.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출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며($F=22.75, p<.001$),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tolerance)는 0.30~0.96에 걸쳐 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03~3.32에 분포되어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으로 Durbin-watson값을 확인한 결과 1.83로 2근처에 있어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안녕감($\beta=.56$)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구분($\beta=.19$)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총 38.0%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 주관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 및 그 관계를 확인하고, 심리적 안녕감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3.41 ± 0.73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4,5,6학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Lee [11]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평균평점이 3.3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31점)와 Won [18]의 연구(3.47점)로 나타난 결과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은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1]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이 3.0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본 연구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인 반면에 Kim [1]의 대상자는 경쟁적 입시에 따른 과도한 부담과 학업 스트레스 및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N=143)

Variable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r (p)	r (p)	r (p)	r (p)
Ego-resilience	1.00	.71 (<.001)	.68 (<.001)	.47 (<.001)
Social support		1.00	.81 (<.001)	.47 (<.001)
Subjective well-being			1.00	.59 (<.001)
Psychological well-being				1.00

Table 4.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143)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2	0.27		3.70	<.001
Subjective well-being	0.49	0.10	.55	4.81	<.001
Grade division	0.18	1.06	.19	2.80	.006
Ego-resilience	0.14	0.10	.14	1.38	.170
Social support	-0.08	0.10	-.10	-0.80	.424
Tolerance=0.30~0.96, VIF=1.03~3.32, Durbin-watson=1.83, Adj. R ² =.38, F=22.75, p<.001					

진로갈등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광역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시·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ang과 Lee [7]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3.90 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본 연구의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나 가족의 지원이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인 반면에 Kang과 Lee [7]의 연구대상자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 부모나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일대일 멘토나 지지체계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직접 비교할 수 없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나 또래친구들과 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부모와 분리로 인한 불안, 외로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한편,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Lee [11]의 연구에서 4,5,6학년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및 중학생이 골고루 연구에 참여한 반면에 Lee [11]의 연구대상자는 4,5,6학년의 초등학교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고학년의 학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본 연구는 3년 단위의 간격으로 학년구분을 하였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그대로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의 학년구분보다는 연구대상자의 폭을 넓혀서 저학년, 고학년에 구분하는 학년구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와의 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교사나 친구지지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순상관관계($r=.47$)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탄력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한 Park과 Song [24]의 연구와 Ahn 등[9]의 연구에서 자아탄력

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순상관계를 나타내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26]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와 Shin [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성과 활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순상관관계($r=.47$)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Park과 Song [24]의 연구와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Ahn 등[9]의 연구와 Ryu와 Lee [27]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상관관계($r=.69$, $r=.57$)를 나타내어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구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등[28]의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다고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1]의 연구에서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r=.14$)이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친구나 또래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사지지의 정도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1]의 연구에서 교사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상관관계($r=.17$)를 나타내어 교사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Lee와 Choi [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심리적 안녕감($r=.52$)이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사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Lee 등 [2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 친구와 교사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래상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와 멘토링 연계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간정도의 순상관관계($r=.59$)를 나타내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Han과 Yoo [23]의 연구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o [19]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의 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Cho [26]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아수용과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의 정도가 높은 순상관관계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o와 Lim [3]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상관관계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부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이 순상관관계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하위영역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 안녕감($\beta=.56$)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구분($\beta=.19$)이었고 이들이 심리적 안녕감의 설명력은 총 38.0%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o와 Lim [3]의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긍정적인 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27%의 설명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부정적인 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24%의 설명력으로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Kim과 Kim [30]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 하위영역인 삶의 만족과 유사개념인 생활만족도와 순상관관계로 나타나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Shin [5]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긍정적 정서와 유사개념인 긍정적 감성향인 감성지능과 순상관관계로 나타나 감성지능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삶에 만족도와 감성지능 정도는 하위영역인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의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Ko [19]의 연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Kim과 Yu [4]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영역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가 높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본 연구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가 상반되었으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 한다고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인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안녕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과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비교연구와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다른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과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내적요인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자아탄력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인 주관적 안녕감을, 환경요인으로 주변 환경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연구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특정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한 관계로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따라서 하계방학과 개학 후의 조사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P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14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2016년 8월 20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수집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학년에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안녕감($\beta=.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년구분($\beta=.19$)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 38.0%로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을 높여 주는 방안마련과 학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의 향상을 위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등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년을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및 중학생으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Kim HJ.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up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dissertation]. Gwangju: Chosun University; 2016. p. 1-126.
- Kim HJ.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to school adjustment of the poor children i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0;17(12):211-233.
- Jo EY, Lim JH.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Mediation by cognitive flexibil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14;25(4):185-210. <http://dx.doi.org/10.14816/sky.2014.11.75.185>
- Kim KS, Yu SM. The relations between factors of psychological and subjective well-be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0;12(3B):1321-1338.
- Shin EJ.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13;17(1):1-12.
- Wi JH, Cho GP.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ren's perceived family strength, self-resilience, social support, stress-cop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14(8):237-264.
- Alien M, Pidgeon, Michelle Key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 2014;2(5):27-32.
- Kim BS, Park MS, Min YG. The effect of ego-resiliency of youth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the model effect of ag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5B):2517-2526.
- Ahn JY, Oh MK, Kim JS. The pathways from attachment to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and peer support. *Korean Associated of Child Studies*. 2011;32(6):63-79.
- Joo JY, Park SY. The effects of mother' optimism,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child's optimism on child's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13;34(3):21-39. <http://doi.org/10.5723/kjcs.2013.34.3.21>
- Lee SH.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master's thesis].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2013. p. 1-62.
- Lee JY, Choi WY.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social suppor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2;13(3):1481-1499.
- Lee OH.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19(1):29-57.
- Jung NJ. The effect on concentration, to the learn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the change of brain quotient through meditation training [dissertation]. Iksan: Wonkwang University; 2010. p. 1-167.
- Ko Y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ience & Culture*. 2008;5(3):13-24.
- Kim KS. The structure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relation analysis of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6;27(1):145-176.
- Jeon JM, Ha YM. Effects of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and social support on coping response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6;29(1):33-41. <http://dx.doi.org/10.15434/kssh.2016.29.1.33>
- Won DR.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16(2):297-311.
- Kang MH, Lee SY.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and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6):265-293.
- Block, Kremem. IQ and ego-regilience: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 Yu SG, Hong SH, Choi BY.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ttachment, and existential spirituality between family risks

- and adaptation.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4;18(1):393-408.
22. Cohen S,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ical*. 1983;13:99-125.
23. Han MH, Yoo AJ. A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s to problems and behavior. *Korean Associated of Child Studies*. 1996;17(1):173-188.
24. Park BG, Song JH. Multidimensional 2×3 factor structure of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007;21(3):591-611.
25. Kim MS, Kim HW, Cha KH. Analysi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1;15(2):19-39.
26. Ryu JH, Lee MJ.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well-being in Korean adolescents: Their struct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07;4(1):55-77.
27. Jang SH, Choi EH, Lee JY. The medic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on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everyday life stres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6;25(2):353-364. <http://dx.doi.org/10.17643/KJCE.2016.25.2.18>
28. Lee HL, Kim YI, Geun HG, Lee YS. Effects of academic stress, somatization symptoms, and social support on coping response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5;28(2):56-66. <http://dx.doi.org/10.15434/kssh.2015.28.2.56>
29. Cho HI.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hope,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011;25(1):153-174.
30. Kim MJ, Kim KB. Influenc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middle aged adults and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13;18(2):150-158. <http://dx.doi.org/10.14370/jewnr.2013.19.2.150>